

혼잣말 종결어미 연구

전 후민*

|| 차례 ||

- I. 머리말
- II. 혼잣말 종결어미의 정의와 목록
- III. 혼잣말 종결어미의 특성
-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혼잣말 종결어미들이 공통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혼잣말 종결어미를 ‘청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혼자서 하는 말에 주로 쓰이는 종결어미’로 정의하고 총 23개의 혼잣말 종결어미 목록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밝힌 혼잣말 종결어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혼잣말은 화자가 화자 자신을 청자로 상정한 발화라는 점에서 혼잣말 종결어미의 화계는 ‘안 높임(또는 낮춤)’으로 설정할 수 있다. 혼잣말 종결어미는 ‘-요’ 결합 여부에 따라 안 높임(또는 낮춤) 등급인 해라체와 해체로 나뉘는데, 해체 혼잣말 종결어미에 ‘-요’가 결합되어 상향 억양으로 실현되면 질문의 효력이 발생한다.

둘째, 혼잣말 종결어미는 감탄, 자문, 결심, 후회, 불평, 추측, 의심 등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할 수 있다. 또한 혼잣말 종결어미는 화자가 어려운 부탁을 하거나 불평, 불만을 던지시 전달하고자 할 때 언어 책략으로 이용하는 독특한 화행적 특성을 보인다.

셋째, 혼잣말 종결어미는 2인칭 대명사와 함께 쓰일 수 없고 ‘싶다, 하다, 보다’ 구문과 같은 이른바 SEA 구문과 통합할 수 있다는 통사적 특성을 보인다. 본고에서는 ‘싶다, 하다, 보다’ 구문과 결합하는 종결어미는 대체로 혼잣말 종결어미임을 확인하였다. 진정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과정.

한 SEA 구문은 ‘보다’ 구문이고, ‘싶다’ 구문과 ‘하다’ 구문은 간접 인용 구문으로 볼 수 있다. ‘보다’ 구문 이외의 SEA 구문으로는 ‘모르다’ 구문을 추가할 수 있다.

주제어 : 혼잣말, 종결어미, 혼잣말 종결어미, 청자높임법, 화행, 2인칭 제약, SEA 구문, 간접 인용 구문

I. 머리말

발화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행위로서 기본적으로 화자와 청자를 전제한다. 화자는 자신이 생각한 바를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청자에게 전달하며, 청자는 화자의 말 속에 어떠한 의도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대답이나 행동을 하게 된다. 즉, 화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것을 말하거나 질문을 하면 청자는 화자의 말에 대답을 하거나 되묻는 등의 여러 가지 반응을 하고, 화자가 청자에게 무엇을 지시 하거나 제안을 할 때 청자는 이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여 역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발화 행위는 언어뿐만 아니라 몸짓이나 표정으로도 표현될 수 있지만, 언어는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발화는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화자와 그 메시지를 수신하는 청자를 전제하지만 발화가 반드시 청자가 있는 상황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혼자 있을 때도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드러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발화를 하고, 심지어 청자를 곁에 둔 상황에서도 청자에게 말을 건네려는 의도가 담기지 않은 말을 혼자서 중얼거리기도 한다.

국어에는 이와 같이 청자를 전제하지 않는 혼잣말에 주로 쓰이는 종결

어미가 존재한다.

- (1) a. “자, 이제부터 또 무얼 한답?” 투덜대듯 그는 또 혼잣말을 했다.
 b. (선배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천장을 계속 올려다보고 있는 사람을 보고) 고개도 안 아픈가?

위 예문¹⁾에서 보듯이 종결어미 ‘-ㄴ답’이나 ‘-ㄴ가’ 등은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단독적 장면의 발화나 설령 청자가 옆에 있다 하더라도 청자를 신경 쓰지 않고서 하는 발화에서 주로 쓰인다. 심지어 (1b)처럼 높임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결어미에 높임이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처럼 국어의 종결어미 중에는 혼잣말에 주로 쓰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다소 미진한 실정이다.²⁾ 이에 본고에서는 위 예문 (1)에서처럼 혼잣말에 주로 쓰이는 종결어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러한 종결어미들이 공통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혼잣말 종결어미를 정의하고 그 목록을 제시

1) 본고에서 사용한 예문은 국립국어원에서 배포한 『21세기 세종계획』(2011년 수정판)의 문어 말뭉치와 구어 전사 말뭉치에서 추출한 것이다(원시 말뭉치 약 6,300만 어절). 혼잣말이라는 담화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구어 말뭉치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구축된 구어 말뭉치는 용례도 많지 않고 주로 대화에 국한되어 있어 혼잣말 종결어미를 다양하게 관찰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오히려 문어 말뭉치가 용례도 풍부하고 맥락을 확인하기도 쉬워 예문으로 활용하기가 더 용이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구어 말뭉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되 구어 말뭉치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문어 말뭉치에서 추출한 용례도 활용하였다.

2) 최근 연구인 이재성(2014)에서는 ‘-구나’와 ‘-네’의 의미를 구성하는 요소는 기존 연구들에서 언급되어 온 ‘새로 읽’이나 ‘추론’ 등이 아니라 ‘발화 순간 깨달은(인식한) 사태를 혼잣말로 발화할 때 쓰인다’는 점임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혼잣말 종결어미들이 상관적 장면에 주로 쓰이는 일반적인 종결어미들과 어떤 점에서 변별되는지를 밝히는 일이 종결어미 연구에 보탬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한 뒤에 혼잣말 종결어미가 종결어미의 기능과 관련하여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특히 혼잣말 종결어미가 청자높임법 체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들이 쓰이는 문장이 어떤 의미·화용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통사적 특징을 보이는지, 특히 이른바 SEA(sentence ending auxiliary) 구문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 보려 한다.

II. 혼잣말 종결어미의 정의와 목록

혼잣말 종결어미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혼잣말³⁾이 정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표준국어대사전>(아래 표준)과 <연세한국어사전>(아래 연세)에서 ‘혼잣말’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2) 혼잣말의 정의

- a. 말을 하는 상대가 없이 혼자서 하는 말.
- b. 남이 듣건 안 듣건 상관하지 않고 혼자서 중얼거리는 소리.

(2a)는 ‘혼잣말’에 대한 <표준>의 풀이이고, (2b)는 <연세>의 풀이이다. 두 사전의 풀이는 ‘혼자서’라는 부분에서는 동일하지만, ‘말을 하는 상대가 없이’라는 부분과 ‘남이 듣건 안 듣건 상관하지 않고’라는 부분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연세>의 풀이가 혼잣말 종결어미를 정

3) 혼잣말이 반드시 종결어미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박재연(2000: 33)에서의 지적대로 ‘아이고, 어머니’ 등의 감탄사로 이루어진 말도 혼잣말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논의의 초점이 종결어미에 있으므로 종결어미로 끝나는 혼잣말이 아닌 경우는 본고에서 언급하지 않는다.

의하는 데에 좀 더 도움이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혼잣말 종결어미가 반드시 청자가 없는 상황에서만 쓰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 a. (할아버지) : 철수야, 더운데 선풍기 좀 켜 봐라.

b. (손자) :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선풍기가 안 보이네.

(박재연 2000: 32)

위 예문을 혼잣말로 볼 수 있는 것은 (3b)의 ‘선풍기가 안 보이네’는 청자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자를 상정하지 않은 채 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만약 (3b)의 화자인 손자가 청자를 상정했다면 ‘선풍기가 안 보이네’는 청자인 할아버지에게 반말을 한 셈이 된다. 따라서 혼잣말을 하는 장면에서 청자의 존재 유무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속으로 혼자서 하는 말인 내적 발화⁴⁾는 청자를 염두에 두지 않은 발화라는 점에서 혼잣말과 비슷한 점이 있다. 내적 발화는 엄밀히 말하면 발화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속으로 하는 말은 음성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므로 생각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의 내적 발화는 인간의 생각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내에서 화자가 혼자 생각한 것을 인용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4) 나는 마음속으로 그가 이제는 좀 가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위의 문장에서 내적 발화, 즉 화자의 생각은 ‘철수(문장에서는 ‘그’)가 이제는 좀 가 주었으면 좋겠는데’라는 내용이었고, 이것이 문장으로 표현되면서 내적 발화는 간접 인용문으로 주절에 내포되고 모문 동사 ‘생각하다’

4) 박재연(1999)에서는 이를 ‘내적 사유’라고 하였으나, 본고에서는 발화의 범위를 좀 더 넓게 보아 이를 내적 발화로 칭한다.

는 이것이 내적 발화라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⁵⁾ 이처럼 내적 발화는 인용문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데, 혼잣말 종결어미와 통합하여 쓰이는 ‘싶다’, ‘하다’ 구문 또한 인용문의 일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적 발화 또한 혼잣말에 포함될 수 있다.⁶⁾ 윤경원(2011: 32)에서도 혼잣말을 화자의 내부에 머물고 있는 ‘내면말(inner private speech)’과 음성적으로 실현되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개인말(outer private speech)’로 구분한 바 있는데, 본고에서도 내면말, 즉 내적 발화를 혼잣말의 일종으로 본다. 다만, 본고에서는 내적 발화가 위 (4)의 예문에서처럼 언어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내적 발화는 그 특성상 인용의 형식으로만 전달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혼잣말과는 다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내적 발화를 포함한 혼잣말의 정의와 이를 고려한 혼잣말 종결어미의 정의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5) 혼잣말의 정의와 혼잣말 종결어미의 정의

- a. 혼잣말의 정의 : 화자가 시공간에 제약 받지 않고 스스로 청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음성적·비음성적으로 실현시킴으로써 의사소통에 간접적으로 관여하기도 하는 말.

(윤경원 2011: 32)

- b. 혼잣말 종결어미의 정의 : 청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혼자서 하는 말에 주로 쓰이는 종결어미.

(5a)는 윤경원(2011)에서 혼잣말을 정의한 것으로서, 이러한 정의에는 혼잣말 담화에서는 청자를 상정하지 않는다는 점, 혼잣말에 내적 발화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혼잣말이 의사소통적 관점에서 간접적인 역할을 하기

5) 안주호(2006-7)에서도 ‘생각하다’와 같은 동사를 혼잣말 인용동사로 한 바 있다.

6)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술함.

도 한다는 점이 고려되어 있다. 특히 혼잣말이 의사소통 상황에서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의는 본고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화자 혼자만 있는 상황일 때는 대부분의 종결어미가 혼잣말 담화에 쓰일 수 있다.

- (6) a. 아이고, 추워.
b. 몸이 허약해져서 헛것을 본 게 분명해.

대표적인 반말체 종결어미인 ‘-어’는 (6)의 예에서처럼 혼잣말로도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관적 장면에서 주로 쓰이는 ‘-어’와 같은 종결어미들은 청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혼잣말에 쓰이기 어렵다.

- (7) a. (할아버지) : 철수야, 더운데 선풍기 좀 켜 봐라.
b. (손자) :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선풍기가 안 보이네. (=3)
(8) a. (할아버지) : 철수야, 더운데 선풍기 좀 켜 봐라.
b. (손자) :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7) 그런데 선풍기가 안 보여.
(9) a. (선배) : 그러니까 네 주장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b. (후배) : 그런가? 그럼 이제 어찌쥬?
(10) a. (선배) : 그러니까 네 주장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b. (후배) : # 그래? 그럼 이제 어찌쥬?

(박재연 2000: 32)

위의 예는 ‘-어’가 ‘-네’, ‘-ㄴ가’와 달리 상관적 장면에서는 혼잣말로 쓰이기 어려움을 보여 준다. ‘-어’가 사용되면 청자를 적극적으로 상정한 발화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자신보다 상위인 청자에 대한 발화로는 적절하

7) 박재연(2000)에서는 샤프(♯) 표시를 문맥상 부적절한 발화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하였는데, 여기서도 이를 따르기로 한다.

지 못한 것이다(박재연 2000: 33).⁸⁾

따라서 본고에서는 ‘-어’와 같이 상관적 장면에서 주로 쓰이는 종결어미를 다루지 않고 혼잣말에 주로 쓰이는 종결어미를 연구 대상으로 한정한다. 이를 좀 더 객관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표준>에서 ‘혼잣말에 쓰여’, ‘자기 스스로에게’, ‘독백 투로’와 같은 메타언어를 사용하여 풀이한 표제어를 추출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1) 혼잣말 종결어미 목록(23개)

-구나(-는구나, -로구나), -군(-는군, -로군), -ㄴ가(-는가, -던가, -은가),
-ㄴ걸(-는걸, -은걸), -ㄴ고(-는고, -던고, -은고), -ㄴ다(-는다), -나, -남,

8) 익명의 한 심사위원께서는 아래와 같은 대화 상황을 예로 들어 혼잣말과 혼잣말 종결어미의 정의와 범위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a. 선생님 : 왜 그 일을 했니?

b. 학생 : 지난번에 말씀하셔서……(고개를 돌리고 청자가 들리지 않게)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를 화자가 혼자서 청자를 비꼬는 말로 이해한다면 이것을 혼잣말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 쓰인 ‘-ㅂ니다’ 역시 혼잣말 종결어미로 보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청자가 들리지 않게’라는 지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는 상관적 장면에서 쓰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7-10)의 예에서 ‘-어’가 쓰인 발화가 부적절한 이유는 ‘-어’가 상관적 장면에서 쓰였기 때문인데, 위 예에서 지문이 없다면 위 발화 역시 부적절한 발화가 된다. 이는 ‘-ㅂ니다’가 혼잣말 종결어미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아래에서 좀 더 상술하겠지만 진정한 혼잣말 종결어미는 청자가 듣는 상황에서도 (무심코 혹은 전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발화 상황에서 ‘-ㅂ니다’는 청자에게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가 혼잣말로 쓰일 수 있다는 것과 ‘-ㅂ니다’가 혼잣말 종결어미라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혼잣말에 주로 쓰이는 종결어미를 혼잣말 종결어미로 정의하기 때문에 상관적 장면에서 주로 쓰이는 ‘-ㅂ니다’가 위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혼잣말에 쓰일 수 있다고 하여 이러한 종결어미를 모두 혼잣말 종결어미로 보기는 어렵다.

-네, -다니(-ㄴ다니, -는다니, -라니), -다니까(-ㄴ다니까, -는다니까, -라니까), -담(-ㄴ담, -는담, -더람, -람, -으람), -더니, -더라, -더라니, -ㄴ결(-을결), -ㄴ까(-을까), -려나(-으려나), -로고, -리(-으리), -리오(-으리오), -아라(-어라, -여라), -아야지(-어야지, -여야지)

<표준>에서 ‘혼잣말에 쓰여’, ‘자기 스스로에게’, ‘독백 투로’와 같은 표현이 포함된 풀이를 가진 종결어미를 검색하면 총 66개가 추출된다. 이 중에서 이형태나 같은 계열인 것들은 괄호로 묶어 대표형으로 제시하고, 방언(-는감)이나 공식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 것(-ㄴ데라니)⁹⁾과 그 밖의 형태¹⁰⁾를 대상에서 제외하면 총 19개의 종결어미가 추려진다. 여기에 <표준>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연세>에서 혼잣말 종결어미로 인정하고 있는 ‘-더라’¹¹⁾와 ‘-ㄴ까’, 박재연(2000)에서 독백문 종결어미로 본 ‘-아라’와 ‘-아야지’를 더하면 총 23개가 된다.

본고에서 설정한 23개의 혼잣말 종결어미가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9) ‘-ㄴ데라니’는 <연세>에는 등재조차 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필자의 직관으로는 ‘-더군’과 ‘-더라니까’는 혼잣말에 쓰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혼잣말 종결어미와 달리 ‘-더군’과 ‘-더라니까’는 ‘싶다’ 구문이나 ‘하다’ 구문에 나타나기 어려워 보이는데, 이는 이들이 혼잣말 종결어미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더군’과 ‘-더라니까’는 혼잣말에 쓰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1) ‘-더라’는 서술법으로 쓰이는 것과 질문법으로 쓰이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질문법으로 쓰이는 ‘-더라’가 혼잣말 종결어미에 해당한다. 가령, ‘그게 언제더라?’와 같은 용법에 나타나는 ‘-더라’가 그것이다.

Ⅲ. 혼잣말 종결어미의 특성

이 장에서는 혼잣말 종결어미가 종결어미의 기능과 관련하여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특히 혼잣말 종결어미가 청자높임법 체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혼잣말 종결어미가 의미·화용적으로서는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또한 어떤 통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차례로 살펴본다.

1. 종결어미의 기능에 따른 혼잣말 종결어미의 특성

국어의 종결어미는 문장을 종결하는 것, 문장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것, 화자의 발화를 듣는 청자에 대한 높임을 표현하는 것, 크게 이 네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윤석민 1998). 우선 (11)에서 제시한 종결어미를 문장종결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2) 혼잣말 종결어미의 문장종결법 분류

서술법	질문법
-구나, -군, -ㄴ걸, -다니까, -네, -다니, -더니, -더라니, -ㄴ걸, -로고, -리, -리오, -아라, -아야지	-ㄴ가, -ㄴ고, -ㄴ다, -나, -남, -담, -더라, -ㄴ까, -려나

혼잣말 종결어미는 문장종결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즉 서술법 어미(감탄법 어미 포함)와 질문법 어미로 나눌 수 있다. 명령법 어미와 청유법 어미는 청자에게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혼잣말 종결어미 중에는 명령법 어미와 청유법 어미가 존재하기 어렵다. 서술법으로 쓰이는 혼잣말 종결어미는 대부분 감탄, 결심, 후회 등 청자와 무관하게 화자 자신의 현재 감정을 드러내는 의미 기능을 한다. 질문법 혼잣말 종결어미는 대부분 자

문을 나타내는데, 가령 청자를 적극적으로 상정하는 ‘-니’와 같은 종결어미는 혼잣말 담화에 나타나기 어렵다.

종결어미의 기능과 관련하여 혼잣말 종결어미가 가지는 특성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은 청자높임법 체계와 관련된 것이다. 높임법이 발달해 있는 한국어의 특징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청자높임법은 종결어미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청자를 상정하지 않는 발화인 혼잣말에 쓰이는 종결어미는 청자높임법상 어느 등분에 속한다고 하기가 다소 모호한 점이 있다. ‘청자’가 상정되지 않은 발화가 청자높임법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자높임법이 종결어미의 고유 기능이라면, 모든 종결어미는 특정 화계를 가져야 한다. 심지어 구호 등에서만 쓰이는 ‘절대문’ 종결어미 ‘-라’도 특정한 청자를 상정하지 않고 특정한 높임의 등급을 드러내지 않지만 한길(2002)에서는 이를 위한 ‘높낮이없음’의 화계를 마련하기도 했다. 혼잣말 종결어미 또한 그 특성상 청자를 전제하지는 않지만, 화계상으로는 화자 자신을 청자로 상정한 발화에 쓰이는 종결어미라는 점에서 높임의 등분은 ‘안 높임(또는 낮춤)’으로 보고, 격식체인 ‘해라체’나 비격식체인 ‘해체’로 분류할 수 있다.

이때 어떤 형태가 ‘해라체’인지 ‘해체’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아직까지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으나 대체로 높임의 ‘-요’의 결합 여부로 보고 있는 듯하다(고광모 2001, 엄경옥 2003). 앞에서 제시한 혼잣말 종결어미를 ‘-요’ 결합 여부에 따라 ‘해라체’와 ‘해체’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¹²⁾

12) 이런 점에서 기존의 청자높임법 관련 논의들에서 그 체계를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사실 격식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십시오체’뿐이고, 격식체인 ‘해라체’는 오히려 격식적인 장면에서 발화되기 어렵다. 이종희(2004: 52)에서도 ‘격식적·비격식적’이라는 말은 ‘발화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 체계를 세우는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고 한 바 있는데, ‘-요’를 기준으로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정확히 구분될 수 있다면 ‘요-결합체’, ‘요-결합불가능체’와 같은 다른 체계 방식을

(13) 혼잣말 종결어미의 청자높임법 체계¹³⁾

격식체		비격식체	
해라체	-구나, -ㄴ고, -ㄴ다, -담, -더니, -더라, -더라니, -ㄴ걸, -로고, -리, -리오, -아라, -아야지	해체	-군, -ㄴ가, -ㄴ걸, -나, -남, -네, -다니, -다니까, -ㄴ까, -려나

‘-요’가 결합될 수 없는 종결어미들은 ‘해라체’로 분류하고, ‘-요’가 결합될 수 있는 종결어미들은 ‘해체’로 분류한 결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은 해체 혼잣말 종결어미는 대부분 ‘-요’가 결합되면 상승 억양과 함께 질문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즉, 단독으로 쓰였을 때는 문장종결법상 질문법 어미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요’가 결합됨으로써 청자를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면서 질문법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14) a. 나이가 몇인데 숫자도 못 세다니!(↓) 이럴 수가…….

b. 나이가 몇인데 숫자도 못 세다니요?(↗) 정말이에요?

제안해 볼 수 있겠다.

- 13) ‘-ㄴ걸’에는 ‘-요’가 결합될 수 있을 듯하지만, ‘-요’가 결합될 수 있는 ‘-ㄴ걸’은 혼잣말 종결어미가 아니다. ‘-ㄴ걸’은 추측과 후회의 ‘-ㄴ걸’ 두 가지가 있는데(최동주 2009), 혼잣말 종결어미에 해당하는 ‘-ㄴ걸’은 후회의 ‘-ㄴ걸’이고, 하향 억양으로만 실현된다. 추측의 ‘-ㄴ걸’은 청자가 있는 상황에서만 쓸 수 있으며, 상향 억양으로 실현되고, 이때에는 ‘-요’가 결합될 수 있다. ‘-아야지’ 역시 두 개의 의미가 있는데, 혼잣말 종결어미의 ‘-아야지’는 결심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때에는 ‘-요’가 결합될 수 없다. 반면, ‘네가 참아야지’와 같은 용법에 쓰이는 의무의 ‘-아야지’는 ‘-요’가 결합될 수 있다. 박재연(2000: 43)에서는 혼잣말에서는 결심의 의미로 쓰이는 ‘-아야지’에 ‘-요’가 결합되면 의무의 의미로 해석되기 쉽다고 하였는데, 본고에서는 결심의 ‘-아야지’와 의무의 ‘-아야지’ 두 가지를 구분하여 다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후회의 ‘-ㄴ걸’과 결심의 ‘-아야지’는 혼잣말 종결어미로서 ‘-요’가 결합될 수 없는 해라체로 보고, ‘-요’가 결합 가능한 추측의 ‘-ㄴ걸’과 의무의 ‘-아야지’는 해체로 본다. 혼잣말 종결어미만을 다루는 본고에서는 당연히 후자는 언급하지 않는다.

(14)의 ‘-다니’는 본래 놀람, 감탄 등을 나타내는 서술법 혼잣말 종결어미이지만, ‘-요’가 결합된 (14b)에서는 상향 억양으로 실현되면서 상대방에게 놀람을 나타내는 동시에 질문의 효력을 발휘한다. 이는 뒤에 묻는 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손현선(1998: 289-290)에서는 주로 단독적 장면에서 쓰이는 ‘-는가’와 ‘-나’가 ‘-요’와 결합하여 상관적 장면에서 쓰이는 것에 대해 ‘의문’이 ‘질문’으로 발전하는 것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의문은 발화자 자신의 정보 결여를 표현하는 행위이고 질문은 발화자가 청자에게 언어적 반응을 요구하는 언어 행위로서(손현선 1998: 289-290), 혼잣말 종결어미가 단독적 장면에서 쓰일 때는 의문을 표현하는 것이 되고 상관적 장면에서 쓰일 때는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의문’이 발화자 자신의 정보 결여를 표현하는 행위라는 지적은 해체 혼잣말 종결어미 중에 감탄을 나타내는 것이 많다는 사실도 설명해 줄 수 있다. 최근 연구들에서는 감탄을 문장 유형이 아닌 의외성(mirativity)과 같은 다른 문법 범주로 다루기도 한다. 대부분의 문장 유형은 상호주관적(inter-subjective)인 성격을 지니는데 감탄문은 주관적(subjective)인 성격을 지니는 등 감탄문은 다른 문장 유형에 비해 특별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박진호 2011: 9). 박진호(2011: 7)에 따르면, 의외성이란 문장에 표현된 명제가 뜻밖임(unexpectedness), 신정보(new information)임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로 정의되는데, 결국 의외성과 감탄을 정보 결여에서 정보 획득으로의 극적인 변화를 표현하는 문법 범주로 본다면 ‘의문’과 ‘감탄’은 정보 결여로부터 정보 획득으로 가는 두 단계를 표현하는, 서로 밀접히 관련된 범주가 되는 것이다. 감탄을 나타내는 혼잣말 종결어미에 ‘-요’가 결합되어 상향 억양으로 실현되면 감탄 역시 의문과 마찬가지로 ‘질문’으로 발전하여 청자에게 언어적 반응을 요구하게 된다. 즉, 화자가 자기가 경험

한 의외성에 대해 청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하고자 ‘-군요? -네요?’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의문과 감탄이 모두 ‘-요’의 결합과 상향 억양의 실현으로 인해 질문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은 해체 혼잣말 종결어미 대부분이 질문법 어미와 감탄을 나타내는 어미라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 물론 모든 해체 혼잣말 종결어미가 ‘-요’가 결합되었다고 해서 질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요’의 결합에 의해 상향 억양으로 실현되는 혼잣말 종결어미의 경우에는 질문의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요컨대, 높임의 ‘-요’가 결합되면 청자의 존재를 상정하게 되므로 혼잣말로는 쓰일 수 없고 청자에게 강력한 언어적 반응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종결어미는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양태적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 박재연(2000)에서는 종결어미가 가진 양태적 의미와 독백문 사이에도 관계도 있다고 보았다. 즉, 종결어미가 ‘결심’, ‘후회’, ‘기원’ 등 청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화자의 심리적 태도만을 표현할 경우에 그 종결어미가 쓰인 문장은 청자를 직접 의식하지 않는 독백문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박재연 2000: 35). 실제로 혼잣말 종결어미 중에서 ‘-구나, -군, -네’ 등은 양태 관련 논의들에서 활발하게 다루어져 왔고, 이 밖에도 놀람이나 감탄의 ‘-다니’, 불만이나 불평의 ‘-니답/람, -남’ 역시 양태적 의미가 느껴진다. 혼잣말이 비록 혼자서 하는 말이기기는 하지만 특별한 감정이나 심리 상태가 아니라면 혼잣말을 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혼잣말 종결어미가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표현하는 문법 범주인 양태와 관련되는 지점 역시 혼잣말이라는 독특한 담화 상황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¹⁴⁾

14) 지면의 한계로 인해 개별 혼잣말 종결어미의 양태적 의미는 후고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혼잣말 종결어미와 양태적 의미 사이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한다.

2. 혼잣말 종결어미의 의미·화용적 특성

박재연(2000)에서는 본고의 ‘혼잣말 종결어미’에 해당하는 것을 ‘독백문 종결어미’라 하고, 이를 의미론적 속성에 따라 ‘감탄, 자문, 결심, 후회, 기원’으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다음은 박재연(2000: 36-45)에서 든 예문을 보인 것이다.

- (15) a.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아이고, 추워라.
 b. [아무도 없는 집에서, 아내가 없는 것을 보고] 어지간히도 토라진 모양일세……쩍쩍.
 c. 어머니, 오늘 그 책을 안 가지고 왔네. 어떡하죠?
 d. 나는 대단하군, 하는 혼잣말을 했다.
 e. 으잉? 몇 번이지? 이런 걸 까먹다니!
- (16) a. 비가 올라나…….
 b. 어린 처녀가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하던데 왜 그랬을까…….
 c. 지금쯤 그 분은 어디에서 무얼 하고 계시는지?
 d. 글썄요, 그게 언제였더라? 아마 지난 목요일이었을 거예요.
- (17) [혼자서] 이제 절대 놀지 말고 밤새워 공부해야지.
- (18) 이럴 줄 알았으면 잠이나 자 둘걸.
- (19) a. [버스 안에서] 차도 밀리는데 여기서 좀 내려 주시지.
 b. 나도 어서 어른이 되었으면!

(15~19)는 각각 박재연(2000)에서 감탄, 자문, 결심, 후회, 기원의 의미를 가진 독백문 종결어미의 예로 든 것이다.¹⁵⁾

15) 본고의 혼잣말 종결어미 목록과 박재연(2000)의 독백문 종결어미 목록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박재연(2000)에서 독백문 종결어미를 선정한 기준이나 근거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몇몇 종결어미의 경우는 독백문 종결어미로 판단하는 데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15b)의 ‘-르세’는 하계체 종결어미로서 하계체를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

혼잣말 종결어미는 감탄, 자문, 결심, 후회, 기원의 의미 이외에도 아래처럼 불평, 추측, 의심 등의 다양한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

- (20) a. 결혼 안 한 게 뭐 큰 사건이라고 저렇게 떠든답?
 b. 비가 오려나?
 c. 그때 내가 말 안 했나?

(20)은 혼잣말 종결어미인 ‘-ㄴ답’, ‘-려나’, ‘-나’가 각각 불평, 추측, 의심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¹⁶⁾

한편, 혼잣말 종결어미는 상관적 장면에서 쓰이는 다른 여타의 종결어미와 다른 독특한 화행적 특성을 보인다.

- (21) (더운 날씨에 제자가 선생님 댁을 방문한 상황)
 a. (제자) : 어휴, 더워라.
 b. (선생님) : 에어컨 좀 틀어 줄까?
 (22) (친구 집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을 보고)
 a. (친구1) : 이거 맛있게 생겼네.
 b. (친구2) : 먹어도 되니까 맘껏 먹어.

위의 대화에서 ‘-어라’와 ‘-네’는 혼잣말 종결어미로서 (21)의 경우 자신

체로 예사낯춤으로 보고 있지만 장인이 사위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말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 상대방을 예우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낯춤’의 등급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화자가 화자 자신을 예우한다는 것은 매우 어색하므로 맥락상 아내를 청자로 상정한 발화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자문 어미 ‘-ㄴ지’와 기원 어미 ‘-었으면’의 경우 각각 ‘모르겠다’와 ‘좋겠다’와 같은 후행 요소가 생략된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는 이들 어미를 완전한 종결어미로 보기 어렵게 한다.

- 16) 이종희(2004)에서는 종결어미의 이러한 의미를 기능의미라 하고, 기능의미를 행위 기능, 정보 기능, 인지 기능, 표출 기능으로 나누어 국어의 종결어미를 분류하였다. 이에 따르면 추측은 인지 기능, 불평과 의심은 표출 기능에 속한다.

보다 위사람인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높임을 표현하지 않았다. 마땅히 높임법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높임법이 표현되지 않은 문장을 쓰면서도 대화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어라’가 혼잣말에 주로 쓰이는 종결어미라는 사실을 화자와 청자 모두 알고 있어 대화의 격률(conversational maxims)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다.¹⁷⁾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화자의 혼잣말에 대한 청자의 반응이다. 청자는 화자의 발화가 혼잣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반응하고 있는데, 이는 청자가 화자의 혼잣말을 통해 화자의 심리 상태나 요구 사항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언어적 반응이나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혼잣말 종결어미의 이러한 화행적 특성은 화자가 상위자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부탁할 때, 또는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불평이나 불만 등을 청자에게 넘기지 전달할 때 화자에 의해 책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즉, (21)에서 제자는 선생님에게 에어컨을 틀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22)에서의 화자는 음식을 달라고 하기가 체면상 어려워서 혼잣말을 흘리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이다.¹⁸⁾ 청자는 화자의 혼잣말을 듣고 부탁이나 요구를

17) 박재연(2000: 32)에서는 국어 화자들에게는 Grice의 대화의 격률 외에도, 청자에게 청자대우법의 관점에서 적절한 등급의 문장을 사용하라는 격률이 따로 존재하는데, 독백문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격률이 어느 정도 무시될 수 있다고 하였다.

18) 익명의 한 심사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21)의 ‘어휴, 더워라’라는 발화는 문자 그대로 날이 덥다는 것을 진술하는 직접발화행위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21)의 상황을 청자가 더위를 식혀 줄 어떠한 조치라도 취해 주기를 화자가 원하는 상황인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21a)는 화자가 ‘에어컨을 틀어 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기 위한 간접발화행위로서 (21a)는 다분히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발화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설령 이러한 가정이 없다 하더라도 (21a)는 (21b)와 같은 반응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제자가 선생님을 앞에 두고 특별한 목적 없이(즉, 직접발화행위로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상황을 상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에 (22a)는 (21a)에 비해 직접발화행위로 사용될 가능성이 좀 더 높는데, 이는 화청자의 관계에

대개 들어주게 되지만, 이를 거부하기 위해 무시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화자와 청자 모두 화자가 한 말이 혼잣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혼잣말 종결어미는 독특한 화행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혼잣말 종결어미의 통사적 특성

혼잣말 종결어미의 첫 번째 통사적 특성은 혼잣말 종결어미는 2인칭 대명사와 함께 쓰일 수 없다는 것이다.

(23) a. *넌 도대체 그게 무슨 꼴이람?

b. *네가 그때 카드가 있었던가?

(23a)의 ‘-람’은 2인칭이 전혀 실현될 수 없고, (23b)는 2인칭이 실현될 수는 있으나 2인칭이 실현되면 혼잣말이 아닌 청자에게 질문을 하는 문장이 되므로 혼잣말 종결어미는 2인칭 대명사와 함께 나타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23)의 상황은 아래 (24)에서 1인칭·3인칭 대명사가 혼잣말 종결어미와 함께 자유롭게 쓰일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혼잣말 종결어미가 청자를 상정하지 않은 발화이기 때문이다.

(24) a.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따른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편한 사이일수록 청자를 의식하지 않은 혼잣말(직접발화 행위)을 하기가 수월하고 선생님과 제자 같은 어려운 사이에서는 혼잣말이 직접발화 행위로 사용되기가 좀 더 어려운 듯하다. 청자를 상정하지 않은 혼잣말의 특성상 혼잣말이 직접발화행위로 사용되면 청자 입장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21a)는 화청자 모두의 입장에서 간접발화행위로 의도되고 해석되는 상황이 가장 자연스럽다.

b. 어쩐지 민수가 오늘 좀 이상하더라니.

혼잣말 종결어미의 두 번째 통사적 특성은 혼잣말 종결어미가 SEA (sentence ending auxiliary) 구문¹⁹⁾에 쓰인다는 사실이다. SEA 구문은 종결어미와 보조용언의 통합 구문이라고도 하는데(박재연 1999), 대표적인 SEA 구문으로는 ‘싶다’, ‘하다’, ‘보다’ 구문이 있다. 보통의 보조용언 구형에서는 본용언이 연결어미(-아, -게, -지, -고)로 실현되는 데 반해, SEA 구문은 보조용언 앞에 오는 본용언이 종결어미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그 특이성이 지적되어 왔다.

(25) a. 영화는 아무래도 울고 있지 않나 싶다.

b. 영화는 이제 서울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c. 영화는 내일 학교에 안 가는가 보다.

(박재연 1999: 155)

위의 예는 각각 ‘싶다’, ‘하다’, ‘보다’ SEA 구문인데, 이때 보조용언 앞에 있는 종결어미인 ‘-나’, ‘-ㄴ까’, ‘-는가’가 혼잣말 종결어미라는 사실은 SEA 구문이 다른 보조용언 구문과 변별되는 부분이 바로 혼잣말 종결어미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 준다.

대표적인 SEA 구문인 ‘싶다’ 구문과 ‘하다’ 구문, ‘보다’ 구문과 혼잣말 종결어미가 어떻게 밀접히 관련되는지 차례대로 살펴보자. 먼저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한 ‘싶다’ 구문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박재연 1999, 안주호 2006ㄴ).²⁰⁾

19) SEA 구문에 쓰이는 ‘싶다’, ‘하다’, ‘보다’ 등을 보조용언으로 보는지 본용언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언급하고, 이들 구문을 지칭하기 위한 용어로 편의상 SEA 구문을 그대로 쓴다.

(26) ‘싶다’ 구문의 특징

- a. 선행형태소 및 활용의 제약
- b. 문미 수행 억양 실현 및 휴지(pause) 개재 가능성
- c. ‘싶다’ 구문의 ‘추측’의 의미

(26a)는 ‘싶다’에 선행할 수 있는 종결어미는 기본적으로 서술형과 질문형 어미이며, 명령형과 청유형 어미는 불가능하고, 서술형·질문형의 유형에서도 모든 종결어미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안주호 2006: 378).

(27) a. 그는 영희가 {갔다/갔나/*가라/*가자} 싶었다.

b. 그는 영희가 { *갔어/*갈게/*갔어요/*가요/*갔습니다/*감세} 싶었다.

c. 그는 영희가 { *갔느냐/*갔어요/*갔어/*갔습니까} 싶었다.

(27a)를 보면, 명령형 어미와 청유형 어미는 ‘싶다’ 앞에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혼잣말 종결어미의 문장종결법이 서술법과 질문법으로 제한된다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27b)와 (27c)는 서술형·질문형 어미 중에서도 혼잣말 종결어미가 아닌 것은 ‘싶다’ 구문에 쓰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28) a. 영희가 집에 없나(↘↗) # 싶어서 그냥 갔지.

b. 그래서 영희가 안 왔구나(↘↗) # 싶어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

(박재연 1999: 162)

(28)은 ‘싶다’ 구문의 또 다른 특징으로서 문미에 수행 억양(↘↗)이 걸

20) SEA 구문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SEA 구문이 복문이기 때문에 가지는 특징은 혼잣말 종결어미와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

릴 수 있고, 종결어미와 ‘싶다’ 사이에 휴지(#)가 개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예이다. 위의 예문의 ‘-나’는 질문법 혼잣말 종결어미로서 상향 억양으로 실현되고, ‘-구나’는 서술법 혼잣말 종결어미이지만 특정 맥락에서 의문을 나타내어 상향 억양으로 실현되는데, 이것이 ‘싶다’ 구문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싶다’ 구문은 대체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어 왔는데, 이러한 추측의 의미 기능은 이미 내포된 종결어미 속에서 나타난다(안주호 2006ㄴ: 387). 앞에서도 혼잣말 종결어미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싶다’ 구문이 ‘추측’의 의미로 파악되는 것은 ‘싶다’ 앞에 오는 혼잣말 종결어미의 의미에 의한 것이다. 이처럼 ‘싶다’ 구문의 여러 가지 특징은 ‘싶다’ 구문과 통합되는 종결어미가 혼잣말 종결어미이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²¹⁾

‘하다’ 구문의 경우에는 ‘하다’의 앞에 오는 종결어미가 좀 더 제약적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싶다’ 구문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 (29) a. 나는 영화가 {[?]/^{*}갔다/갔나/^{*}가라/^{*}가자/^{*}갔어/^{*}갔느냐} 했다.
b. 나는 영화가 갔나(↘↗) # 했다.

(29)를 보면, ‘하다’ 구문은 서술법 어미와의 결합이 제약된다는 것만 ‘싶다’ 구문과 다를 뿐, 문미 수행 억양의 실현이나 휴지의 개재, ‘추측’의 의미 등은 ‘싶다’와 같은 특징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보다’ 구문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다른 SEA

21) 박재연(1999: 164), 안주호(2006ㄴ: 378)에서도 이를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대부분의 종결어미가 특정 맥락에서 혼잣말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싶다’ 구문 앞에 오는 문장의 성격이 혼잣말이라면 혼잣말 종결어미 이외의 어미들도 ‘싶다’ 앞에 올 수 있다. 그러나 ‘싶다’와 결합하는 종결어미 중 혼잣말 종결어미의 빈도가 훨씬 더 높다.

구문과 같지만 ‘-나’, ‘-르까’ 등 소수의 종결어미와만 제약적으로 결합하고, 문미 수행 억양이 실현되거나 휴지가 개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싶다’, ‘하다’ 구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 (30) a. 영화는 벌써 논문을 다 { *썼다/썼나/*써라/*쓰자/*썼어/썼느냐} 보더라.
 b. *영화는 벌써 논문을 다 썼나(↘) # 보더라.

박재연(1999: 177)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SEA 구문은 ‘보다’ 구문밖에 없다고 하였는데, ‘보다’ 구문이 ‘추측’의 의미 기능을 가지는 것은 ‘-나 보-’ 전체의 의미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이렇듯 SEA 구문으로 같이 다루어졌던 ‘싶다’, ‘하다’, ‘보다’ 구문은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안주호(2006-)에서는 ‘싶다’ 구문이 일반적인 보조용언 구문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는 점을 들어 ‘싶다’ 구문을 일종의 인용 구문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박재연(1999)에서는 ‘싶다’ 구문과 ‘하다’ 구문을 직접 인용 구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을 인용 구문으로 보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직접 인용 구문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 (31) a. 나는 네가 집에 갔나 {싶었지/했지}.
 b. 영화가 집에 갔나?

앞에서 혼잣말 종결어미의 특징의 하나로 2인칭 제약을 언급하였는데, (31a)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싶다’, ‘하다’ 구문에서는 이러한 제약이 해소된다. 이는 ‘싶다’, ‘하다’ 구문을 직접 인용 구문으로 볼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만약 (31a)가 직접 인용 구문이라면 안긴문장인 ‘네가

집에 갔나'가 실제 발화된 문장을 그대로 옮겨 온 것이라는 뜻인데, 이미 살펴보았듯이 혼잣말 종결어미 '-나'는 2인칭과 함께 쓰일 수 없는 제약이 있다. 그러므로 실제 발화는 '네가 집에 갔나'가 아닌 (31b)처럼 3인칭으로 실현되었을 것이다. (31b)의 원 발화에서는 3인칭인 주어가 인용 구문으로 안기면서 2인칭으로 인칭이 달라지는데, 이와 같은 인칭 변화는 간접 인용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싶다' 구문과 '하다' 구문은 직접 인용 구문이 아니라 간접 인용 구문인 것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싶다'와 '하다'는 보조용언이 아니라 인용동사로서 어휘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본다.²²⁾ 이처럼 혼잣말 종결어미와 통합하는 '싶다', '하다' 구문을 간접 인용 구문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했던 내적 발화 인용 구문을 상기시킨다.

(32) 나는 마음속으로 그가 이제는 좀 가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4)

위 문장은 내적 발화가 인용절로 내포된 문장으로서 간접 인용 조사 '-고'와 인용 동사 '생각하다'를 갖추고 있고, 인칭 변화(철수 → 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형적인 간접 인용 구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내적 발화가 혼잣말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이 또한 '싶다', '하다' 구문이 간접 인용 구문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22) '싶다' 구문과 '하다' 구문에 선행하는 절이 문미 수행 억양을 가질 수 있고 휴지가 개재될 수 있다는 점은 '싶다' 구문과 '하다' 구문이 직접 인용 구문이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인용 구문을 직접 인용 구문과 간접 인용 구문으로 구분하는 데 있어 억양이나 휴지와 같은 음운적인 현상보다는 혼잣말 종결어미의 인칭 제약 해소나 인칭 변화와 같은 문법적인 현상이 더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보아 '싶다' 구문과 '하다' 구문을 간접 인용 구문으로 파악한다. 어쩌면 '싶다' 구문과 '하다' 구문은 직접 인용 구문과 간접 인용 구문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용 구문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한편, SEA 구문과 비슷한 구성을 이루는 다른 구문도 존재하는 듯하다.

- (33) a. 찌개가 잘 끓여졌는가 모르겠어.
 b. 애가 이제 안 끓어지고 잘 나오려나 몰라.
 c. 녹음이 잘 됐나 모르겠네.
 (33)'a. *찌개가 잘 끓여졌는가(↘↗) # 모르겠어.
 b. *애가 이제 안 끓어지고 잘 나오려나(↘↗) # 몰라.
 c. *녹음이 잘 됐나(↘↗) # 모르겠네.

위의 예는 ‘모르다’가 ‘-ㄴ가’, ‘-려나’, ‘-나’와 같은 혼잣말 종결어미와 함께 쓰이는 예인데, 제약적으로 질문법 어미와만 결합하고 문미 수행 억양·휴지 개재 등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보다’ 구문과 같은 SEA 구문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다만, ‘모르다’가 보조용언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천착해 볼 필요가 있으나 ‘보다’가 어휘적 의미를 잃으면서 앞에 오는 종결어미와 함께 ‘추측’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과 ‘-었-’이 결합할 수 없는 활용상의 제약을 가진다는 점을 중요한 기준으로 본다면 혼잣말 종결어미와 함께 쓰이는 ‘모르다’ 또한 무지(無知)가 아닌 다른 SEA 구문처럼 ‘추측’을 나타내어 어휘적 의미를 다소 잃었고 ‘-었-’과 함께 나타나지 않으므로 보조용언으로 문법화해 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르다’ 구문과 관련해서, <표준>과 <연세>에서는 ‘보다’ 구문과 달리 (33a~c)와 같은 혼잣말 종결어미와 통합되는 ‘모르다’ 구문에 대한 기술이 결여되어 있고, ‘-ㄴ지’, ‘-ㄴ지’와의 결합에 대해서만 기술이 되어 있다. 그런데 ‘모르다’ 구문 속에 나타나는 ‘-ㄴ지’, ‘-ㄴ지’는 그 성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 (34) a. 아무도 누가 범인인지를 모른다.

- b. 친구가 화났을지도 모른다.
- c. 육개장이 얼마나 매운지 몰라.
- c'. 육개장이 얼마나 매운지(*를/*도) 몰라.

위 예는 <표준>에서 ‘모르다’의 예문으로 제시한 것인데, (34a)와 (34b)는 ‘-ㄴ지’ 뒤에 격조사와 보조사가 결합하는 것으로 보아 명사형 어미와 유사한 쓰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34c)는 (34c')에서처럼 조사의 개입이 불가능하므로 SEA 구문으로도 볼 수 있을 듯한데, 이때 (34c) 구문이 ‘얼마나, 어찌’ 등과 함께 쓰여 감탄을 나타낸다는 것은 이때의 ‘-ㄴ지’는 감탄의 혼잣말 종결어미와 비슷한 성격을 보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게 한다. 앞에서 잠깐 박재연(2000)에서 제시한 ‘-ㄴ지’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각주 15번), 앞에서 들었던 예를 다시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 (35) a. 지금쯤 그 분은 어디에서 무얼하고 계시는지?(=16c)
- b. 지금쯤 그 분은 어디에서 무얼하고 계시는지를 모르겠다.

앞에서 (35a)는 ‘모르겠다’가 생략된 듯하여 이때의 ‘-ㄴ지’를 완전한 종결어미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이때의 ‘-ㄴ지’ 문장은 감탄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고, (34a)와 같이 의문사와 함께 쓰여 의문을 나타내면서, (35b)처럼 조사의 개입도 가능하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35a)의 ‘-ㄴ지’와 (34a, b)의 ‘-ㄴ지’, ‘-ㄴ지’가 같은 것으로 묶이고, (34c)의 ‘-ㄴ지’는 SEA 구문의 ‘보다’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고 해도 (34c)의 ‘육개장이 얼마나 매운지’와 같은 것은 감탄을 나타내기에는 하지만 혼잣말이라고 하기 어렵고, 여전히 후행 요소가 생략된 듯한 느낌이 든다. 이는 ‘-ㄴ가’, ‘-나’, ‘-ㄴ까’ 등이 단독으로 문장을 이룰 수 있는 것과 대조된다. 현재로서는 (‘얼마나’ -ㄴ지 모르-에서 ‘-ㄴ지’를 혼잣말 종결어미라고 단

언하기는 어렵지만, 감탄의 의미와 혼잣말 종결어미, 그리고 SEA 구문이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싶다’, ‘하다’, ‘보다’ SEA 구문과 더불어 ‘모르다’ 구문까지 SEA 구문으로 볼 수 있음을 논의하였는데, 이처럼 기존의 논의들에서 제시되었던 것 이외에도 국어에는 다양한 SEA 구문이 존재할 수 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SEA 구문에 자주 나타나는 혼잣말 종결어미들의 용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혼잣말 종결어미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본고에서는 혼잣말은 청자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은 채 혼자서 하는 발화이고, 혼잣말 종결어미는 이러한 혼잣말에 주로 쓰이는 종결어미라 정의하였다.

혼잣말을 화자가 화자 자신을 청자로 상정한 발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혼잣말 종결어미는 높임의 등분상 ‘안 높임(또는 낮춤)’으로 설정할 수 있고, 해라체와 해체 둘 중에 한 체계에 속할 수 있다. 이때 해라체와 해체를 가르는 기준은 높임의 ‘-요’의 결합 가능 여부이며, 해체에 속하는 혼잣말 종결어미는 대부분 질문법 어미나 감탄을 나타내는 어미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체 혼잣말 종결어미에 ‘-요’가 결합되어 상향 억양으로 실현되면 질문의 효력을 갖게 되는데, 높임의 ‘-요’가 결합되면 청자의 존재를 상정하게 되므로 혼잣말로는 쓰일 수 없고 청자에게 강력한 언어적 반응을 요구하게 된다.

혼잣말 종결어미는 사용 맥락에 따라 감탄, 자문, 결심, 후회, 불평, 추측, 의심 등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청자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하는 혼잣말은 언어 책략적인 전략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 화행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혼잣말 종결어미의 통사적 특성으로는 2인칭 제약과 SEA 구문과의 관련성을 제시했다. 혼잣말은 그 특성상 2인칭 대명사와 함께 쓰일 수 없으며, SEA 구문 앞에 나타나는 종결어미는 대체로 혼잣말 종결어미임을 확인했다. SEA 구문 중에서 ‘싶다’와 ‘하다’는 인용 구문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 구문에서 혼잣말 종결어미의 2인칭 제약이 해소되는 것은 이들이 간접 인용 구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진정한 의미의 SEA 구문은 ‘보다’ 구문이라 할 수 있고, 혼잣말 종결어미가 선행하는 ‘모르다’ 구문도 이와 비슷한 성격을 보이므로 이 또한 SEA 구문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종결어미 관련 논의들에서 혼잣말 종결어미는 다소 등한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인간의 언어는 사람들 사이의 대화 속에서 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언어의 본질이 인간의 사고를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화자는 청자의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고, 따라서 화자 스스로의 말, 즉 혼잣말은 문법론에서만 아니라 담화·화용론에서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혼잣말이라는 담화 장르의 특성상 담화·화용적인 맥락이 매우 중요한데, 본고에서 이를 정치하게 다루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또한 혼잣말 종결어미는 역시 특정한 청자를 상정하지 않는 글말 종결어미(글에서 쓰이는 어미)와도 서로 유관한데, 이에 대해서도 본고는 다루지 못했다. 본고에서 다 밝히지 못한 미진한 점들은 후속 연구를 통해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광모, 「반말체의 등급과 반말체 어미의 발달에 대하여」, 『언어학』30, 한국언어학회, 2001, pp.3-27.
- 권용문, 「해요체의 발달 연구」, 『국어 높임법 표현의 발달』, 박문사, 2009.
- 노대규, 「국어의 감탄문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6,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981, pp.169-223.
- 박재연, 「“종결어미와 보조용언의 통합 구문”에 대한 재검토」, 『관악어문연구』2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9, pp.155-182.
- _____, 「독백과 독백문 종결어미에 대하여」, 『국어학논집』4, 역락, 2000.
- 박진호, 「한국어에서 증거성이나 의외성의 의미성분을 포함하는 문법요소」, 『언어와 정보사회』15,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2011, pp.1-25.
- 손현선, 「이른바 반말 종결형태의 양태적 의미 연구-‘-어, -지, -군, -네, -는가, -나’를 중심으로-」, 『국어 문법의 탐구』IV(남기십 엮음), 태학사, 1998, pp.251-304.
- 안주호, 「인용동사의 문법적 고찰-근대국어를 중심으로-」, 『우리말글』37, 우리말글학회, 2006ㄱ, pp.143-169.
- _____, 「현대국어 ‘싶다’ 구문의 문법적 특징과 형성과정」, 『한국어 의미학』20, 한국어의미학회, 2006ㄴ, pp.371-391.
- 엄경옥, 「한국어의 반말에 대한 고찰」, 『어문논집』31, 중앙어문학회, 2003, pp.5-23.
- 윤경원, 「한국어 혼잣말의 의사소통적 특성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윤석민, 「문장종결법」, 『문법 연구와 자료』, 태학사, 1998, pp.359-394.
- 이재성, 「혼잣말 종결어미 ‘-구나’와 ‘-네’의 의미 차이 연구」, 『문법 교육』21, 문법교육학회, 2014, pp.191-216.
- 이종희, 「국어 종결어미의 의미 체계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임흥빈, 「국어의 ‘절대문’에 대하여」, 『진단학보』56, 진단학회, 1983, pp.97-136.
- 최동주, 「종결어미 ‘-크걸’의 기능과 문법적 특성」, 『국어학』54, 국어학회, 2009, pp.225-250.
- 한 길, 『현대 우리말의 높임법 연구』, 역락, 2002.

Abstract

A Study on the Private Speech Sentence-final Endings

Jeon, Hu-Min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 private speech sentence-final endings. Ou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speech level of the private speech sentential-final endings can be set up as low-level because the private speech is a utterance that the speaker regards oneself as a hearer. The private speech sentential-final endings are divided into hay-la style and hay style, according to whether or not they can be combined with '-yo'. If the private speech sentential-final endings of hay style are combined with '-yo' and realized as rising tone, they have the effect of interrogative.

Second, the private speech sentence-final endings have various semantic functions such as exclamation, self-question, resolution, regret, complaint, supposition, suspicion, etc. And the private speech sentence-final endings can be used as linguistic strategies when a speaker wants to ask a big favor or express grumbles and dissatisfaction by hints to a hearer.

Third, the private speech sentence-final endings can't co-occur with a 2nd person pronoun and can combine with SEA(sentence ending auxiliary) constructions, which is the syntactic properties of the private speech sentence-final endings. Also the real SEA construction is the 'po-ta' construction, the 'siph-ta' construction and 'ha-ta' construction are a indirect quotation construction. In addition to the 'po-ta' construction, we can accept the 'mo-lu-ta' construction as a SEA construction.

Key Word : private speech, sentence-final endings, private speech sentence-final endings, hearer-oriented honorific system, speech act, 2nd person restriction, SEA constructions, indirect quotation construction

전후민

소속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과정

전자우편 : nimuh@hanmail.net

이 논문은 2015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5년 8월 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8월 10일 게재 확정됨.